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2. 5 · 31 지방선거 교회 · 지도자 | 3. 지역사회발전과 교회의 역할 | 6. 셀사역으로 비상하는 교회 | 9. 황우석 사태가 주는 교훈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6년 3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88호

민족을 성서 위에

복음이 처음 우리 민족에게 전파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교육, 의료, 각종 사회운동을 전개하였고, 새 시대와 새 문물을 향한 계몽과 개화의 전위대가 되었다.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한국교회는 겨레와 민족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당시로서 한국교회는 시대에 앞서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였던 것이다. 한국인들의 의식 개혁과 생활의 근대화를 위하여 금주 ·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아편과 공창 폐지를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신교육을 시행하고, 성경구락부의 야학을 통해 한글교육과 사회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전체 국민의 1%가 채 되지 못했지만 사회적인 지도력과 영향력과 공신력은 아주 대단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19년 3.1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길선주 목사와 이승훈 장로 등이 대거 참여하여 독립선언에 동조하였고, 이에 고무되어 전국 교회 교우들이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게다가 많은 교회가 고종황제를 위한 추모집회를 가진 후 나라를 잃은 상실감과 민족 독립의 필요성에 고취되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래서 민경배 교수는 "대저 교회 없이 3.1운동을 전국적 폭발에 이르기 어려웠다"고 평가하였다. 당시의 목회자들은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설교하였다. 자연히 3.1운동으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도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3.1운동 이후 3개월간의 전국 독립만세 시위운동 상황을 보면 참가인원 202만 3,S9명, 사망 7,509명, 부상 1만 5,961명, 투옥 4만 6,948명의 희생을 치렀다. 이 가운데 기독교인의 피해가 17.6%였고, 그 해 5월까지 파괴된 교회의 수와 체포된 교역자의 수로 보아도 기독교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삼일운동의 정기는 그 후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조직된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근대 시민혁명 의식과 자주 독립적인 국민국가의 수립, 민족의 통일을 위한 민족정신으로 오늘날까지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이제 오늘의 과제는 복음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떻게 문화적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장로 대통령을 만든 경험도 있고, 내각의 기독교 장, 차관들을 배출한 바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복음이 이 민족 위에 심장과 같이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글 편집부]



이달의 말씀

여호수아 14장12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 새 학기의 계절에 교육을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학기에 새로 선출된 강원도 교육감 등 모든 교육계와 각 학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5월 지방선거를 위해
혁신도시 본공정 선정 이후 이어지는 춘천의 미래 개발과 새로운 비전이 새 지도자들의 선정을 통해 새롭게 제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위해
각 교회마다 도시를 측복하며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모임이 이제는 연합해 하나 되어 거룩한 춘천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 성시아카데미를 위해
3. 21 ~ 6. 20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12주간 열리는 성시아카데미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이를 통해 21세기 미래 성시지도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 성폭과 가폭 교육을 위해
2. 22 ~ 3. 31까지 춘천제일교회에서 진행되는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사 자격인증교육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이들이 전문 상담사로서의 활동을 잘 할 수있도록.

· 아가피아를 위한 기도
3. 16부터 매주 목요일 16주간 베드로 선교센터에서 열리는 아가피아 꿈의 학교 교사(2급) 과정을 통해 인격과 비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 개발과 지도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INI STEEL
아이엔아이스틸(주)
(주)춘천하치장

(주) 대 한 철 강
대한가설산업(주)

상무 손 종 한

철근, H-Beam, 유로폼
단관파이프, 써포트
건설자재 판매 · 임대 · 중고매입
자재수리전문

주요 납품 실적
안디옥감리교회(구남춘천교회)
춘일감리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665
Tel : 033)254-3333
033)251-6571~2
Fax : 033)244-3334
H·P : 017-376-2255



최고의 정제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

5.31지방선거에 즈음하여 1

지방선거 · 교회 · 지도자

수작에서 수평으로

우리 사회는 '87년 6월의 시민 항쟁과 이를 통한 정치적인 변화, 문민정부의 출현 그리고 1995년 6월에 있었던 4대 지방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지방자치제:지자제)는 지금까지의 권력의 중앙집중과 통제가 수직에서 수평적으로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절대 권력의 개념이 사라지고 주권자에 의해 선택받은 정부가 그 주권자를 위해 질 좋고 높은 정치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곧 지금까지의 통치로서의 정치는 사라지고 봉사로서의 정치가 자리 잡게 되며, 이 변화에 국민은 국가와 권력의 주인으로서 자의식을 드높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책임의식도 동시에 갖게 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국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각성의 수준이 높음을 알고 이에 걸맞는 정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지자제 시대의 한국교회

지자제 시대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그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헌신성에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러운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특별히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 속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서민들을 돌아보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선교에 충실한 교회였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교회는 칭찬을 받았다(행2:47). 지자제 시대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지역 내의 다양한 그룹들과 협력하여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교회 안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여 자신의 직업이나 일상생활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주적인 사회는 선거를 통해 지역과 사회를 발전시켜 나아갈 일꾼들을 세운다. 교회는 교인들과 유권자들이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후보를 의회에 보내서 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며,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잘 하도록 지지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반면에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회가 바라는 지도자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아마도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활동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에 매료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를 지도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비극이 되기 쉬우므로 바른 지도력에 대한 통찰, 바른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교회가 바라는 지도자는 **첫째,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지도자다.** 이 말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죄를 지적하면서 한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삼상15:17)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 이것은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다.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의 심정을 가지지 못한 자는, 비록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이미 지도자가 아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엄격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 지도자가 되었든지, 혹은 종교 지도자가 되었든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교훈이다. 요셉은 그 좋은 실례이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훈련을 받음으로써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고난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5:8)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자기가 자도자로서 제물이나 명예 등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엄격한 훈련을 견딜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셋째, 인격적 일관성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격적 일관성은 정직성(진실성)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중적인 삶이나 행동은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밑바닥에서부터 함몰시킨다. **넷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잘 포장된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모델이나 세일즈맨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서 자신이 몸소 주장하는 진리를 실천하는 구도자와 같은 실천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모든 것에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지도자의 지도력은 발견되고 개발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선거가 되어야

미국의 헤기아이 박사는 정치적 지도력을 규정하면서 지도력의 조건을 세 가지로 들었는데, 첫째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가?", 둘째는 "구체적 목표가 있는가?", 셋째는 "항구적 가치(공동의 생활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교적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에 근거하는가?"등이다. 우리 사회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와 남북관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이상과 전망 그리고 이를 수행해낼 능력과 경험을 쌓은 새로운 정치적 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성령충만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글 편집부]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 영 춘
최 영 조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김 춘 베
김 미 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T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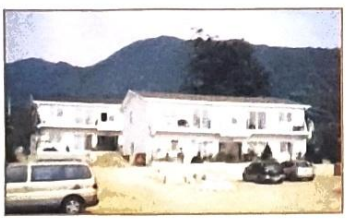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해 비 타 트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소망이 넘치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나눔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건축은 후원자, 지원봉사자, 또한 여러모로 힘써 주시며 관심을 기지고 기도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의 열매입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지회는 3년 차를 지나, 금년도에는 4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미디 2동씩 짓게 되어 16세대가 입주하여 살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기꾸어 온 땀의 결실입니다.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집이 없는 이웃에게 사랑의 집을 공급하게 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롭게 1.1.3.3 운동을 전개합니다. 1은 해비타트 기본 정신인 기독교 사랑의 정신으로 한번 작정한달에 1회 후원, 1은 한달에 1계좌 3천원 후원, 3은 한번 작정하면 3년 동안 후원(3년 이후 후원지 의사에 따라서 연장 가능), 3은 삼천명 후원자를 모집하여 매년 지속적인 해비타트 기독교 사랑의 정신으로 육신의 집과 영혼의 집을 지어가는 운동에 다같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 해비타트 주택, 사랑의 집은 더욱 알차게 계속 지어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시는 마음으로 이웃 분들에게 알려 주셔서 동참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 사랑으로 후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1.3.3. 운동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계좌: 농협(예금주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춘천지회) 203 - 01 - 532101 계좌로 자유롭게 1구좌 3천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긴급좌담. 지역사회발전과 교회의 역할

이번 시간에는 한림대 재무학과 교수로 계시는 안동규 교수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강원도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수님께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래 혁신도시문제로 인해 지역 간에 심각한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혁신도시문제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도시는 자연스러운 특성이 있어요. 모든 도시가 하나의 발전모델을 획일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춘천은 춘천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부도시로서 관공서가 많고, 교육의 도시로서의 문화적 특색도 있습니다. 반면 산업도시로서 급성장하지 않았는데요. 환경을 중요시 하는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시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도시진단은 전문가 혹은 연구소에 의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밀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 원동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규명한 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합리적 절차를 통해서 힘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춘천에 대한 일반적인 진단과 함께 기독교적인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위해서 춘천기독교연합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길러내며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시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는 헌신을 위한 신앙적 결단과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의 생각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춘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함께 생각을 나누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춘천포럼"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춘천에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연구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춘천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각 영역별 전문가 그룹을 30여명 정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200-300명 정도의 포럼회원을 확보해서 힘을 결집할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조목사님의 생각에 저도 공감하며 찬성합니다. 보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영역별 전문가 그룹(주로 교수님들이 될 것입니다) 30여명 정도가 모여서 한마음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이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저는 춘천포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재정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특정단체나 집단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되고 춘천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중심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춘천포럼은 행정과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간사 2인 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회원으로 등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 좋겠어요.

정: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춘천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오랫동안 섬겨 오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합운동, 사회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못해요. 전문가는 많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열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인드가 닫혀 있으면 모든 일이 어렵습니다.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과도 협력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평생 뜻을 같이하는 동역자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심인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수년간 모여서 함께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포럼"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 보다는 작지만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씩 동참시켜 나아가는 것이 더 확실하고도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조: 저는 성시화운동을 하면서 21세기 기독교선교운동은 일반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주의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혁신도시와 사학법개정 등과 같은 문제들도 신앙적 차원에서 해결해 볼 수는 없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러 어려운 점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일반시민이면서도 신앙인의 한사람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문제나, 사학법개정반대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은 참으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문제들은 영혼구원과도 같은 절대적인 진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선동에 휩쓸리게 되요. 연합회 차원에서는 오히려 깊이 관여하지 말고, 일반기독시민으로서 올바르게 가치판단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의 말씀은 연합회나 교회차원에서는 사회문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정말 연합회나 교회가 사회문제에 그토록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이러한 불의를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내린 신앙적 결단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결단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고민도 안하고, 연구도 해보지 않고,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일시적 감정으로 참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조: 일반사회문제, 지역문제에 대해서 교회나 연합회가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저는 혁신도시문제로 춘천, 강릉, 원주 등 강원도 지역갈등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역주의가 아닙니다. 춘천에도 기독교연합회가 있고, 강릉에도 있습니다. 원주나 그 밖에 여러 지역에도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혁신도시문제가 첨예한 갈등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강원기독교연합회가 주선하여 춘천, 강릉, 원주 등의 기독교연합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고민했다면 갈등보다는 화합을 통한 균형적 지역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 강원도와 춘천시가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하는데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원기독교연합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두어 각 지역의 연합회가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지면 좋을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화해자로 오셨듯이 교회의 역할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각 지역의 연합회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뜻을 모으면 각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비추어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여러 도시를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목적이 분명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도시와 지역이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나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비전을 가진 유능한 사람들을 키우게 되면 그들이 춘천시를 위해, 지역을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을 섬길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일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절)를 명심해야 해요. 시민들은 복음을 말로 듣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조: 강원도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교수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바쁜 시간에도 성심껏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시: 2006년 2월 17일
장소: 춘천수립장
진행: 조영춘
글정리: 정재호 / 사진 김미경



<약 력> 안 동 규
(현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강원도 공선협 집행위원장, 강원도 민자유치기획심의의원, 춘천경실련 집행위원장 등)



춘천 성시화운동 선언문

Holy City Movement Chun cheon Declaration(1997)

성시화운동이 각 도시마다 활동화가 되면서 성시화의 연합체를 꿈꾸게 되고 이를 통해 세계성시화의 비전 등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이때 춘천에서 97년 선언되었던 춘천 성시화운동 선언문이 이런 입장을 정의하고 부흥의 기틀을 다지며, 이 시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난 호에 이어 이 글을 싣는다.

12개항의 고백

1. 우리는 춘천 성시화 선언문을 토대로 계속적인 춘천 성시화의 사역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관심과 계획을 받들어 청지기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질서를 지키고 가꾸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3. 춘천 성시화는 그 어떤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춘천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일어나는 인격과 삶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개인의 영혼구원을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신실하고 긴급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것을 결의한다.
4. 그리스도의 주권이 춘천전역에 인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춘천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개와 성화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쓴다.
5.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공권력을 순종하되, 불의한 통치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6.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임을 명심하여 이 영적싸움에 승리할것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7.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적 요소로 인해 소속된 교단과 단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 소망, 한 주님,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을 받았음을 명심하여 모든 분열과 불일치를 회개하고 주안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힘쓴다.
8. 춘천성시화의 과업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되도록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9. 총체적 선교 모델인 춘천성시화운동을 타 지역에 확산시켜 민족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가 되도록 힘쓴다.
10. 춘천성시화운동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결코 완성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1. 춘천성시화운동은 말씀, 기도, 성령과 믿음에서 힘을 공급받아 비폭력적이고, 섬김의 방법으로 실행할 것을 힘쓴다.
12. 춘천성시화운동은 특정인 · 특정교회 · 특정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나온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나타나도록 겸손하게 일할 것임을 다짐한다.

1997년 11월 성시본부출범 1주년을 기하여…

3. 성시화운동과 비그리스도인 · 공권력

우리는 이 도시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돕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은 어떤 이유로든 강제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자유와 자발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거나 미움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상 종교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또 다른 죄악과 만행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한다. 그러므로 성시화운동은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대로 모든 시민이 함께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도시를 만들려는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우리는 공권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받아들이며 감사한다. 공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집행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의 평화, 백성들의 안위에 기여할 때만이 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롬13:1).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제정된 모든 공공의 법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나, 통치권을 장악한 국가 권력이 명백히 반인륜적, 반민족적, 반하나님적으로 나아갈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감당하여야 할 예언자적 사명도 있음을 천명한다. 아울러 개인 시민의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 사회세력을 지지하지 않으며, 단지 종교적 이유만으로 특정 인사를 지지하지 않음도 분명히 밝힌다.

4. 성시화운동과 영적전투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도시를 덮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영을 대적하여 싸우고,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와 도시를 전복시키고, 성시화를 향한 모든 사역을 약화 및 증지시키려고 애쓸 것이다. 우리는 이를 미리 경계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적 전투는 기도를 통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하고, 진리와 기도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 중보기도와 영적 전투를 통한 춘천에서의 승리는 세계의 성시화운동의 모델이 되고, 출발이 되어 진 세계 곳곳의 도시마다 영적 싸움의 승리가 전파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

5. 성시화운동과 차세대 전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2:17)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이 운동이 우리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만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 청소년 등 차세대에게 계속하여 체계적으로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 성시화운동의 체계적인 정립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성경적인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고, 선교 단체와 기독교 단체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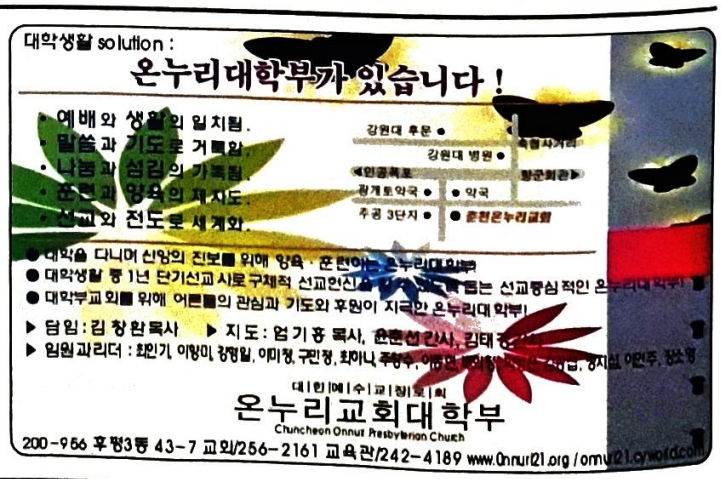
6. 성시화운동의 정신과 방법론

성시화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도시에 충만한 상태로서 이는 그 도시에 속해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성시화는 전도운동, 교회갱신운동, 그리고 사회개혁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되는 기존의 운동, 단체의 활동 등은 계속 격려되어야 하며 이들은 서로 겸손한 자세로 협력 및 동역자적인 관계를 구축해가야 한다. 즉 운동에 있어 각 개인과 교회 및 단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유익한 재능과 은사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성시화운동은 성경이 보여주는 바, 말씀 기도 성령 사랑의 방법을 택한다. 세상적 방법과는 분명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따르자는 것이다.

[글편집부]



온누리교회 청년부는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

김 홍 주 권사(효자감리교회)

지난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춘천비하르선교협의회 일행은 CCF에서 주관한 인도 비하르 단기선교를 주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무사히 마치고 들아왔다. 그 모든 내용 중, 전체 일정과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두 가지 선교사역에 관하여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2월 6일 새벽 춘천을 출발해 인천공항, 홍콩공항을 경유하여 방콕에 도착하니 저녁 7시였다. 그리고 타이항공편으로 인도 콜코타공항에 내리니 밤11시. 모기 가득한 임시 숙소에서 새우잠을 자고, 아침 콜코타 하우라 기차역에서 9시간 동안 기차여행 끝에 목적지인 파트나에 도착했다. 만 이틀이 꼬박 걸린 셈이다.

그곳에 춘천이 낳은 인도 선교사 '이영길, 정은경' 부부가 마중을 나와 주었다. 그리고 6일 등안 이영길 선교사의 안내로 파트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도 비하르 선교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다. 파트나에 건설한 가나안 농군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읽기학교, 쓰레기처리 사역, 아시아나 교회 사역, 어린이 문맹퇴치학교, 성인 문맹퇴치학교 등이다.

그리고 '자무이'라는 작은 읍 옆에 있는 '친베리아' 마을에는 이번 우리 일행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미션스쿨'이 있다. 이 지역에서도 역시 비공식 학교지만 '문맹퇴치학교'가 진행되고 있었고, 갠지스강 옆에 '빈롭리'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워 예배와 찬양 그리고 '문맹퇴치'를 하고 있었으며, 제자훈련학교도 진행하고 있었다.



여행 9일째 되는 날, 기차를 타고 다시 콜코타로 와서 항공편으로 방글라데시로 향했다. 박천록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웃또르 지역에 있는 몰라텍교회를 방문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다. 그리고 다카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그 지역의 현지 교민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다.

11박 12일. 실로 빡빡한 일정이었다. 그러나 일행 중 어느 누구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모든 일정에 순종했으며 어느 현지를 방문하더라도 아이들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양했다.

인도 사역지 중 '친베리아' 지역의 '빈롭리' 마을이 있다. 갠지스 강 주변에 형성된 작은 마을인데 우리 효자감리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회교도를 믿던 지역으로 이영길 선교사님이 믿음의 터를 닦은 곳이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도저히 학교라고 말할 수 없는 낡은-전기도 수도도 없고 출입문조차 없는-건물에서 아이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도저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다. 두 개의 교실 중 한 교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작은 아이가 one, two, three,....를 부르자 다른 아이들이 큰 소리로 따라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소망의 빛을 보았다.

우리 일행은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인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미 복음의 불씨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 땅 끝까지"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에 놀라움과 큰 은혜를 받았다.

또 크게 감동 받았던 것은 춘천광염교회 청년부 단기팀이 마침 이 지역을 찾아와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활동을 행하며 주님을 전하는 장면은 너무나도 가슴을 울렸다. 만약 한국이라면 도저히 어디에서라도 이런 옷차림을 만날 수 없는 불결해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청년들은 그들을 안고 볼에 입 맞추고 같이 뛰놀며 그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을 심고 있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9:35-39)"

다음으로 우리에게 뜨거운 도전을 주었던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남쪽 빈민촌인 웃또르 지역의 '몰라텍'교회. 이번에 찾아간 사역지 중 유일하게 건물 밖에 '십자가'를 올린 교회이다. 모슬렘의 아성인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천록 선교사는 처음 개척할 당시의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어찌 다 말로 설명 할 수 있겠냐며 소탈하게 웃어넘긴다.

몇 해 전에는 모슬렘 과격분자들의 소행으로 집작되는 '폭탄투척'사건이 있었는데, 집회 중 많은 교인들이 피를 흘리며 부상당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피의 역사'를 보이셨고,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섬기고 있다. 어디 그 뿐이랴 "살해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숨어지내던 일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2003년도에 선교지에서 추방당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경험케 된 박 선교사는 한국으로 돌아와 2년여를 지내게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남아있던 교회의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하셨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셨으며 서로 전화 연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하게 하셨다.

'몰라텍교회'에서 지역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장면과, 오후에 어른들과의 연합집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다. 20평도 채 안되는 작은 공간에서 교회 안팎으로 1000여 명의 인원들이 운집하여 드리는 뜨거운 예배-성령이 강림하심을 느끼는-를 한번 상상해 보라.

주님께서는 방글라데시를 사랑하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지금도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깨달았을 때 일행들은 눈물 흘리며 현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했다.

예배 후 아이들에게는 '사탕 3개와 비스킷'을, 어른들에게는 '쌀 3kg'를 비닐봉지에 나누어 전달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가난에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들의 눈빛은 모두 혹여 못 받을까? 하고 걱정 어린 눈빛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11박 12일 단기 선교 기간 동안의 체험은 어쩌면 수박 겉핥기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행 모두는 분명히 그 지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다.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다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교지에 대한 기도와 헌신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몸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호수아 위십 미션댄싱 수강생 모집

1. 대 상 : 몸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원하는 교회 사역자, 청장년, 어린이 등 모든 대상.
2. 모집인원: 00명
3. 일 시: 3월중 개강
4. 시 간: 오전반 - 10:00 ~ 11:20
   오후반 - 6:00 ~ 7:20, 8:00 ~ 9:20
5. 회 비: 월 5만원
6. 모임장소: 1관 - 경원대태권도장(석사동 우석초교 정문 옆)
   2관 - 한림 미술치료센터(퇴계주공 1단지정문 앞)

※ 다이어트 운동으로는 음악줄넘기 교실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강사 한 예 영 집사 (갈릴리교회)
(위십 미션댄싱 연구회 리더)

문 의 : 263-6022, 017-374-2440

"3월 6일 확장이전으로 태권도 교육이 새롭게 바뀝니다"
세계태권도선교회 할렐루야시범단 춘천지회
경원대태권도장 수련생모집



1. 경원대학교 태권도학과 호신술 담당교수인 관장님이 직접지도.
2.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선교(방학을 이용한 태권도단기선교실시).



"Be sure to start whit God"

관장 정 대 교 집사(갈릴리교회)

※ 교육내용
-예의, 품새, 겨루기, 호신술, 격파, 시범.
-학교체육 - 특기교육(줄넘기) - 체력운동(줄넘, 축구, 자전거타이킹)
-특수체육(CP장애 한벤실시)
-시청각교육(예절교육, 영화상영, 태권도선교 관련자료상영)
-세미나 (운동과 재활-경원대학교 한방병원 물리치료실장(6단증) 운동과 음식- 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4단증))



교육문의: 263-6022, 011-9791-6055 위치: 석사동 767-5 우석초등학교 정문 옆

탐방 I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춘천중앙장로교회(사공정 목사)편입니다

셀(Cell) 사역으로 비상하는 교회



춘천중앙장로교회(사공정 목사)는 빠른 시간에 성장한 춘천의 중형교회이다. 뿐만 아니라 춘천 지역에서 가장 잘 정착된 셀 사역 중심교회로도 알려져 있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는 춘천중앙장로교회. 그 성장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교회의 시작

지금부터 15년 전 사공정 목사를 중심으로 개척된 춘천중앙장로교회는 '효자동교회'라는 이름으로 효자동 작은 가정 교회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교회 개척시절, 3년여 만에 100여명을 넘어선다. 원래 사공정 목사가 신학수업을 받은 것은 훨씬 오래 전. 그러나 사회참여에 대한 강렬한 부르심 때문에 젊은 시절을 기독 사회단체에 몸담아 활동한다. 춘천 YMCA에서 사역한지 20여년. 척박한 이 땅 가운데 기독사회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등분서주한 시간들이었다. 사공정 목사는 이 기간이야말로 한반도를 비롯해 일본, 동남아, 유럽 등을 오가며 국제적인 감각과 함께 우리 민족과 교회가 어디로 가야할지 좌표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회고한다.



그 후 그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전임 목회로의 부름을 받은 것은 지난 1991년. 더 이상 목회에 대한 주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느 날 조건 없이 사회운동을 내려놓는다. 현재는 그 어떤 일보다도 목회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애정을 가지고 YMCA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해 오고 있다는 사공정 목사. 현 사무총장 신덕진 집사는 사공정 목사가 키운 제자이자, 함께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충성스럽게 중앙장로교회를 섬겨오고 있다. 사공정 목사는 현재까지 YMCA 부이사장으로 섬겨오고 있다.



교회의 부흥

춘천은 변화가 없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런 도시에서 중앙장로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공정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공을 돌리지만 그를 잘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 첫째가 사공정 목사의 '목민(牧民)의 마음'이다. 사공정 목사는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기를 기뻐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사공정 목사라고 누군가 귀띔한다. 그래서 그런지 사공정 목사에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무언가 신비스런 힘이 느껴진다.

중앙장로교회 부흥의 두 번째 원인은 사공정 목사의 은혜로운 설교말씀이다. 사공정 목사의 설교말씀은 평이하면서도 깊이 있는 본문중심 설교이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은혜가 심령 속에 서서히 젖어듬을 느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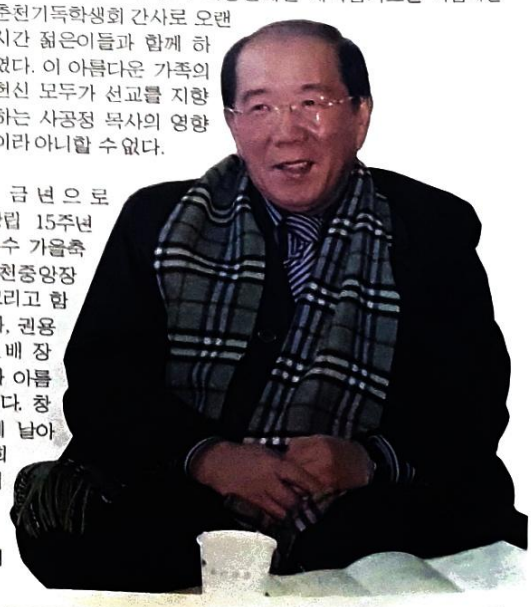
그 부흥의 셋째 이유는 셀 교회 방식의 적용이다. 셀 교회는 이미 한국 교회에 널리 소개되고 있는 대로 교회내의 보다 작은 교회를 지향한다. 중앙장로교회는 기존의 구역조직을 과감히 셀 교회 조직으로 바꾸었다. 초기에는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현재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교우들을 든든히 세우는 훌륭한 도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구역을 목장이라고 부르며, 교회 내에서 살아있는 세포처럼 기능하며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특히 구역은 철저하게 선교 지향적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목장의 이름부터가 선교지역의 이름을 따서 '라오스목장, 요르단목장, 중국목장, 인도목장, 방글라데시목장, 캄보디아목장, 필리핀목장, 남아공목장, 호주목장' 등으로 불린다. 중앙장로교회의 작은 셀 교회는 세계선교를 지향하며, 전도의 도구로서 인상적인 자리 메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교회

사공정 목사는 스스로 자신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편한 목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목회자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기존 목회의 구조와는 달리 사공정 목사는 거의 모든 사역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위임했다. 구역원의 심방 및 장례, 결혼까지 평신도 사역자인 목자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기에 사공정 목사는 훨씬 여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중앙장로교회의 화요일은 특별한 요일이다. 바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화요마을'의 예배가 있기 때문이다. IMF이후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음식사역으로 시작된 '화요마을'은 매 모임 때마다 1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늘 큰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금은 이미 널리 알려진 '연탄은행'도 중앙장로교회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은밀히 시행해오던 구제 프로그램. 이들을 섬기는 손길 또한 평신도 사역자 그룹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잘 길러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나라와 춘천성시화운동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공세현 선교사와 그의 자부 신소미 선교사, 그의 장녀 사공은혜는 대학캠퍼스를 책임지는 춘천기독학생회 간사로 오랜 시간 젊은이들과 함께 하였다. 이 아름다운 가족의 헌신 모두가 선교를 지향하는 사공정 목사의 영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금년으로 창립 1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영흔대추수 가을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춘천중앙장로교회와 사공정 목사,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황영철 목사, 권용주, 유승태 전도사, 윤건배 장로, 허대영 장로. 모두가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들이다. 창립 20주년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춘천중앙장로교회의 더 큰 날개 짓을 기대해 본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사랑의 아가피아 agapia 강원지부

평범한 아이를 인재로 양성하는 아가피아 인재개발학교

공교육이 무너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교육도 돈만 많이 들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입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되었고 교회도 교회교육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학교(CHURCH SCHOOL - 전인교육)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잘 훈련되고 실력을 갖춘 교사들만 준비되면 충분히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시스템과 훈련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기데이(아기페+유토피아) 입니다.

이기데이의 학습법은 유대인 학습법 등 전 세계 유수의 교육 학습시스템들의 장점을 살려 우리의 토양에 맞게 연구 개발된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21세기 꿈의 학습 시스템입니다.

13년간의 실험을 통해 그 놀라운 성과가 입증되었으며, 1년 안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배가될 뿐만 아니라 2년 정도면 대학교육 4년 과정을 마친 사람들보다 더 논문을 잘 쓰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충남 서산의 대안학교인 꿈의 학교는 이기피이 학습법의 산물입니다.

이기데이 학습은 영성, 지성, 체성, 감성, 관계성, 지도성, 전문성 등을 구성 요소를 기초로 인격과 비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 개발과 지도자 양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78개의 독서스쿨과 꿈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으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춘천에서도 4기에 걸쳐 170여명의 교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고사양성과정을 마치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부모님들은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녀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홈스쿨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또래 그룹을 모아 독서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독서 및 논술지도 학원 운영도 가능합니다.
- 교회 내 방과 후 교실, 주말학교, 꿈의 학교(대안학교) 개설 운영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교회마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초, 중, 고등 과정)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교실 강사로 활동하는 등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탁월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 특히 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선교지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녀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드림교육 강원지부 (효자동312-1, 베드로 선교센터 5층) ☎241-9939, 지부장 김성호목사 011-372-9100 사무국장 이보경목사 010-3234-6536 간사 이은미 011-9058-3711

소개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한국대학생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는 윌리엄 브라이트 박사가 1951년에 창설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 선교운동은 미국 전 대학으로 들풀처럼 확산되어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소망을 심어주었고, 개인전도 말씀공부 기도운동 찬양사역 치료상담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돕고 있다. 현재는 세계의 197개국에서 조직되어 있으며 각국의 중요대학과 지역, 계층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지도자를 육성하는 세계 최대의 초교파 선교단체이다.



한국C.C.C.는 1958년 플러신학교에 유학중이었던 김준곤 목사가 빌브라이트 박사의 간증에 감동을 받아 C.C.C.운동의 동역자가 될 것을 제안 받고 최초의 해외 국가인 한국C.C.C.가 창설되었다. 김준곤 박사가 시작하여 45년간 민족 복음화에 주력해 왔고 전국의 대학에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전도 · 육성 · 훈련 · 파송을 목적으로 하여 1974년 "EXPLO 74"를 비롯한 "80 세계복음화대성회" "95년 세계선교대회"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제자화운동과 영적부흥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세계선교의 핵심이 되어 다가오는 2007년 CM(Campus Mission)2007을 통해 선교의 불을 세계 각국에 다시 옮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1990년부터 여름 · 겨울방학 중 세계 도처에 매년 2,000여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해 선교 한국을 만들어 가고 있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지금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10만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회부흥 세계선교 그리고 통일을 위해 기도운동을 펴고 있다. 이러한 운동과 사역은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이며, 민족의 입체적 구원과 세계선교의 헌신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춘천C.C.C.는 1969년도 창립해서 37년 동안 캠퍼스 민족 세계복음화에 주력해 왔다. 72년 전국 최초로 지역교회와 연계하여 춘천을 제2예루살렘 제2의 제네바처럼 성시의 모델로 만들어 주님께 바치고자 성시화운동을 전개했던 곳이 춘천C.C.C.이다. 그동안 춘천 성시화를 꿈꾸며 교회와 연합하여 매년 도시전도를 통해 복음화에 일역을 담당해 왔고, 춘천의 모든 선교단체와 하나 되어 "음악과 강연의 밤"(10회)을 통해서 캠퍼스에서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절대가치 부재, 도덕적 타락, 영적인 혼란 등으로 어디에도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각설이 타령처럼 보여지는 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일회적인 복음지시로만 개인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일회적인 전도를 넘어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의 친구관계로 그들을 제자화하기 위해서 춘천C.C.C.는 사랑방 운동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한다. 현재 회관 증심으로 500여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더블어 세계선교를 위해서 언어훈련을 함께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 초 한림 성심병원 선교팀과 한림의대C.C.C. 아가페팀 38명이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인도 켈커타 외각 3개 지역에서 2000여명을 진료하고 500명의 어린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전도하고, 3회의 '한국의 밤' 공연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수를 전했다.

캠퍼스는 전략적으로 미래 지도자들의 뭇자리판이며 인간과 사회의 온갖 진리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학원 복음화의 성패는 춘천 성시화와 민족 복음화 나아가 세계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전 유럽을 싣고 갔다는 토인비의 비유를 절감하면서 현재 로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캠퍼스를 어떻게 복음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공동의 과제이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글 춘천C.C.C. 대표 이갑용 목사 ☎254-5776]

영혼의 양식

고난의 가시에 삶이 찔릴 때 - 고린도후서 12 : 7~10



강원침례교회 차 덕 수 목사

일을 하다가 가시에 찔려보신 적이 계신지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가시와 같고 가시는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며 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체를 찌르는 가시보다도 마음이 찔려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인생의 가시에 찔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삶의 가시가 옮겨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7절~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 하였더니"

바울이 그 가시가 옮겨지도록, 떠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에수님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등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의 잔을 옮겨 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야고보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고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며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했는데도 고난이 떠나지 않고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응답되지 않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옮겨지지 않는 내 삶에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고난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드디어 교만은 사단의 사자보다도 무서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교만해 질수 있는 조건(건강 · 명예 · 권세 · 부귀영화 등등)을 갖추고 살다가 어느 날 교만해 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훨씬 더 유익한 삶이요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약1:2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명령이며 명령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유익과 목적이 있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게서 배웠던 삶의 모습입니다. 에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고난의 저녁에 기도 속에서 십자가는 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을 알았을 때 기쁨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했습니다.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어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리다. 이것이 주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고통을 이기고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놀라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대표 이 용 운 집사
(온누리장로교회 ·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어머니와 딸 세대가 함께 하는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춘천점

연예인과 함께하는
제시뉴욕
가죽·모피·예복전문
대표전 순 천
☎ 252-7262
위치 조양동 조흥은행본점 앞

삶

자주장사 루디아의 꿈을 좇아

기독가업체 협회은 마드모아젤 춘천지점 이정숙 권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편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행 16:12-15)

1. 자주장사를 시작하다

이정숙 권사는 24년 전 홉트아동복지회 춘천지부로 발령이 난 남편 장승기 장로를 따라 춘천에 왔다. 이곳에서 그녀가 출석하게 된 교회는 춘천그리스도의교회. 당시 천막교회로 성도들도 별로 없고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여자들도 경제활동을 해서 교회재정을 돕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이 권사는 구역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께서 응답하셔서 구역식구 한분 한분이 일을 갖게 되었단다. 이 권사의 기도응답은 이렇다. 어느 날 오빠가 사돈이 하는 모피회사를 구경시켜주고 옷을 사주었는데, 이웃들이 그녀의 옷을 보고 자신들도 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 권사는 이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사돈네 모피회사에서 모피를 받아다가 팔게 되었고, 이 사업은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교회를 도우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수요기도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권사는 점포를 얻어 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춘천에서 그런 점포가 잘 되겠느냐고 우려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성도를 심방하던 이 권사의 눈에 한 점포를 보게 하셨다. 당시 허허빌판이던 후평동에 새로 생긴 점포. 이 권사는 천정도움을 받아 그 점포를 세내어 의류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처음에 모피사업으로 시작한 이 권사는 고객들이 춘천에서 구하기 힘든 질 좋은 의류도 취급해주기를 원하자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그러면서 점포의 이름을 붙인 것이 루디아 콜렉션이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꿈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서이다. 현재 지점으로 있는 마드모아젤 본사에서는 점포의 간판을 마드모아젤로 바꾸어주기를 원하지만 이 권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루디아의 사명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루디아를 점포간판의 주 이름으로 사용하기를 고집한다.

2. 주께로 마음이 열리다

이 권사의 집안은 유교 집안이다. 그녀가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먼저 주님을 영접한 맏언니를 통해서였다. 당시 중학생이던 이 권사는 언니의 강권으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으셨다. 이때부터 그녀는 주님께 사로잡혀 밤낮으로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런 그녀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좋게 보일리 없었다. 남달리 이 권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아버지는 공부에 지장이 크다고 집회참석을 그만두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던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과 같이 집회에 한번 참석해 주시면 다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다. 이에 크게 화가 나신 아버지는 살에 옷이 붙을 정도로 매를 대셨다. 후에 아버지는 주님을 영접하고 집사직분으로 소천 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이를 떠올리시며 너무 심하게 대해 미안하다고 울곤 하셨단다. 이 권사는 주님을 잘 믿도록 크게 통과의례를 치른 것이 아니겠느냐고 미소를 짓는다.

3. 평생 동역자를 만나다

간호사로 병원생활을 하게 된 그녀는 병원근처 화곡그리스도의교회에 출석하였다. 어느 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그녀에게 중매가 들어왔다. 신랑감은 동대전그리스도의교회 담임목사의 조카였던 장승기(현재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장로) 청년. 그는 당시에도 홉트아동복지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이 권사는 장 장로와 오랫동안 교제 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와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녀는 갑자기 세례를 받을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고 한다. 세례식 때 세례를 집례하던 목사님이 이 권사에게 물으셨단다. "자매는 결혼을 하게 될 때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나 지위 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겠느냐?" 이 질문에 그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그 대답이 서약이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셨단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을 결혼하면서 갑자기 떠올리고는 너무나 놀랐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의 마음에 "너는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이 권사는 결혼한 후 간호사 생활을 접고 두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따라 춘천으로 오게 되었다.

4.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의류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이 권사는 주님께 깊이 기도하게 되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선교사들을 보게 하셨다. 그녀가 만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고생이 많았고, 또한 안식년으로 고국에 돌아와서도 쉴 곳이 없어서 친척집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권사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한번은 이 권사가 여선교회 회장으로 있을 때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가 선교보고를 하게 되었다. 그 보고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이 권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다. 한 달 동안 기도한 이 권사는 목사님에게 당시 교회 형편으로 볼 때 힘든 일이지만 방글라데시 선교사역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허락을 받았다. 이후 방글라데시 믈라멕 지역 선교사역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루디아가 바울사도에게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권했던 것처럼 이 권사의 곰은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2년 반 동안 추방을 당해서 고국에 들어와 있을 때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고생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그녀는 선교사들이 고국에 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권사의 마음이 해외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점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점포가 단순히 옷만 입혀 보내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까지 입혀 보내는 점포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녀는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보게 되었다. 15년 동안 고객들의 상처 난 영혼을 어루만져서 교회 공동체로 이끄는 사역을 하고 있다. 자신의 고객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주께서 감동을 주시는 때에 복음을 제시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매장 문을 닫은 날은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고 한다.

이 권사는 고백한다. "그냥 주부로만 머물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매순간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정숙 권사를 만나고 돌아오니 마치 이천년 전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돌아온 것 같았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계 호텔 예약 ● 전세 버스 알선
● 여권 및 비자 업무 ● 신혼여행
● 국내 · 외 여행 알선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수학 · 졸업 여행)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헌 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황우석 사태가 주는 교훈

황우석 사건이 사기인지 음모인지 아니면 미국의 교만한 간섭이든 이 사건으로 우리 기독인들에게 말하는 바가 크다.



생명 존중, 생명 회복이 이마도 줄기세포 연구의 모토였을 것이다. 황우석 그는 '생명에도 레벨이 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은 중요치 않다. 이익이 되지 못하는 생명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의 모든 계획(창6:5)은 이미 생명 연구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자기의 영광(요7:18)을 구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다.

온 국민들은 불치병 환자들이 침대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꿈이 현실화되며 세계화 시대에 헤무기나 다름없는 줄기세포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생명산업의 중심으로의 든 덩어리를 꿈꾼 황 박사가 제시한 환상의 세계를 찾았다.

기독교계는 배아 복제 기술이 복제인간을 만들 어 낼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하는 반기독교적인 악행이라고 반발함으로 생명이 창조주께 있다면서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모순에 빠졌다. 만일 과학자들의 연구로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창조주께서 그 영역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간단하다.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호흡은 물질이나 육체의 영역이 아닌 영과 혼의 영역이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며(아담) 여자 없이 남자에게서 사람을 만드시며(하와) 남자가 여자를 알므로 사람을 만드시며(우리)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사람을 만드시며(예수) 들들로도 천국에 앉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마3:9).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황우석 개인의 사기사건이나 몇몇 든에 눈이 어두운 사업가들의 음모로만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판단이다.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이면에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무서운 조직과 어두운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크고 작은 세상사의 온갖 사건들이 전 세계적인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보이지 않는 연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인 시각이요 가치관이다(엡6:12).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있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즉이는(계13:14-15) 생명전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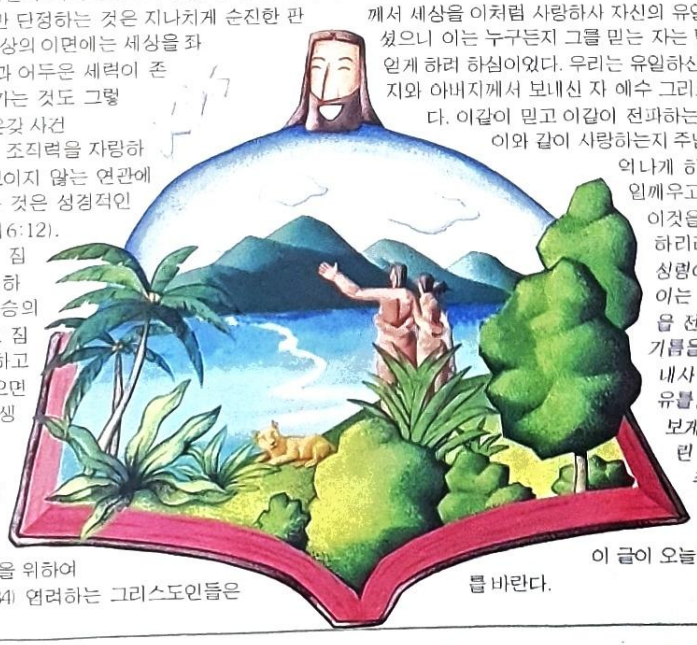
성도는 생명의 길을 비취는 자들이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마6:25-34)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주 예수님의 잔과 침례에 참여하는 영광스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보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마16:21-26), 소유의 넉넉함(눅12:15)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모르는 자들(눅12:15, 18:18-30)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마18:23-35, 20:15)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미혹된 것이다.

어찌 이런 빛에 오겠는가? 기독교는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인가? 사람들이 황우석에게 열광하고, 건강을 위해 용한(?) 음식점, 병원을 찾는 것은 우리의 수치이다. 기독교는 분명 세상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 성령 침례를 말하는 이것보다 더 참인 희망의 교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한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곳 춘천에 사는 이유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기적이 끝났는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행하는 일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다.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난 것은 아닌가?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연고가 아닌가? 위선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하게 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다. 이같이 믿고 이같이 전파하는지, 이 사랑을 알고 이와 같이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시 우리를 기억나게 하여 순수한 미음을 잃께우고자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리라(요13:17)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4:18-19) 이 글이 오늘날 우리 귀에 응하기를 바란다.

[글. 편집부 이영규]



예 방

부정적인 말

미국의 한 소년이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타내기 위해 꾀를 냈다. "돈이 필요해요.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자살할 겁니다." 아버지는 자살한다는 말에 크게 놀라 아들에게 돈을 주었다. 재미를 붙인 소년은 그 후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자살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소년이 장성해 한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아내가 죽고 말았다. 젊은 남편은 그 충격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 결국 그는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하고 말았다.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의 성격도 점점 포악하고 비관적으로 변해갔다. 청년이 된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청년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는 윌리암 맥킨리 대통령을 이유 없이 총으로 쏘아 죽게 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얼마 후 사형을 당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현실로 옮겨진다. 비극도 유전성이 있다. 우리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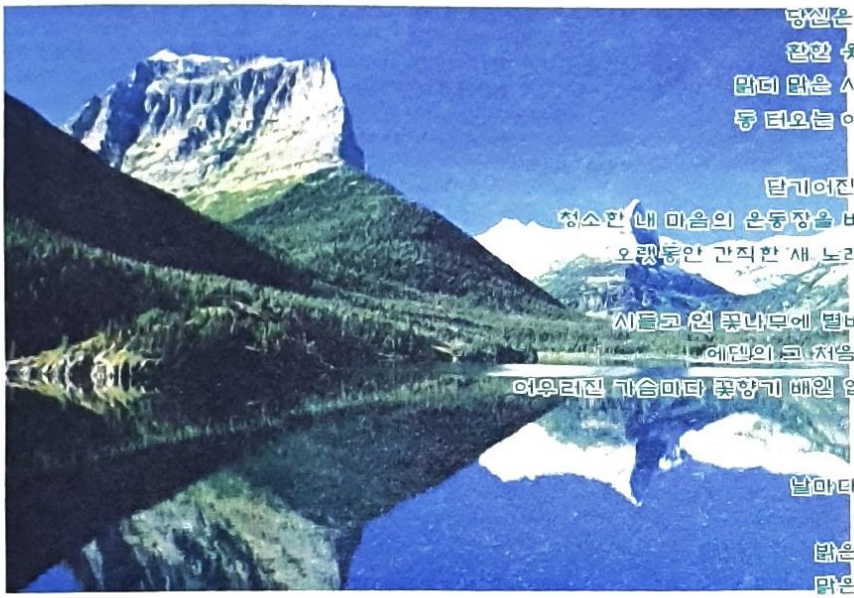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입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시우동장로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춘천일신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앤루어
쏘안테리어	디티피아
국민일보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에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홍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학 규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포·토·에·세·이

기쁜 나라



당신은 날마다 오십시오
환한 웃음으로 오십시오
맑디 맑은 시냇물로 오십시오
동 터오는 아침으로 오십시오

닫기어진 창을 열겠습니다
청소한 내 마음의 운동장을 비워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한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시들고 언 꽃나무에 봄바람 불어주십시오
에덴의 그 처음 얼굴을 주십시오
여우리진 가슴마다 꽃향기 배인 입맞춤을 주십시오

당신은,
날마다 날마다 오십시오
당신 이름 가득히
밝은 나라로 오십시오
맑은 나라로 오십시오
.....
환한 나라로 오십시오.

시 이상묵
(시인, 가신교회 담임목사)

성서기행

성경에 등장하는 봄철의 별자리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까만 밤하늘에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이 박혀있는 별들 말입니다.

마치 보석처럼 오늘도 내 머리 위에서 영롱하게 반짝이며 날 내려다보며, 어이! 거기 그래 자네 말이야! 나 좀 쳐다보라구! 라며 소곤대는 것 같군요.

자 ! 그럼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별들에 관한 것 중에서 욥기 38장에 나오는 "악투루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왜냐구요? 지금 밤하늘에 오렌지색을 띠고 있는 악투루스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별은 봄철의 별자리거든요.

먼저 욥기 9장 9절로 갈게요.

그는 악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레아데스 상단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KJV성경)

욥기 38장 32절은

네가 열두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KJV성경)

자! 그럼 목등(목자)의 이름을 가진 악투루스를 만나러 갑시다.

봄이 찾아오는 지금 밖에 한번 나가 보세요. 시간은 밤 9시 정도가 좋겠네요.

제일 먼저 길잡이 별인 북두칠성을 찾으세요. 북두칠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아시죠. 이 북두칠성 손잡이의 끝에서 밑으로 곡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곡선을 따라가면 오렌지색의 아주 밝은 1등성(정확히는 0등성)별 하나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거에요. 찾으셨나요? 그 별이 성경에 나오는 "악투루스"라는 별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세요.

아! 그리고 염두궁성 중에서 지금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악투루스"에서 서쪽으로 직선을 그리세요. 그럼 아주 밝은 별 하나가 바로 머리 위에 있을걸요. 그게 바로 황도 제 5궁인 사자자리 별자리 중 알파별인 "레굴러스"라는 별입니다. 레굴러스별에서 남쪽으로 비스듬이 내려가면 황도 제 6궁인 처녀자리의 알파별 "스피카"라는 별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그 별들을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편집부]

행사안내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실시"
1. 일시: 2006년 3월 11일(토) 오후 1시~3시
2. 장소: 이마트 춘천점 3층
3. 내용:
 1) 아동학대 관련 사진 및 그림전시회(15점)
 2) 홍보물 배포
 3) 아동학대 추방 및 신고 의무자 서명
 4) 인식조사표 5) 모금활동
4. 문의: 국번없이 1391

월드비전

♣노인대학 개강식
1. 일시: 2006년 3월 2일(목)
2. 장소: 월드비전 3층 강당

♣고학년 아동방과후교실 개강식
1. 일시: 2006년 3월 6일(월)
2. 장소: 월드비전 3층 강당

♣청소년 방과후교실 개강식
1. 일시: 2006년 3월 6일(월)
2. 장소: 2층 소강당

♣가족지킴이 봉사자 오리엔테이션
1. 일시: 2006년 3월 7일(화)
2. 장소: 복지관

♣강원재활병원 무료검진
1. 일시: 2006년 3월 13일(월)
2. 장소: 복지관 3층 강당
3. 참가인원: 60명
4. 주 최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강원재활병원

♣어린이 합창단 오디션
1. 일시: 2006년 3월 23(목)
2. 장소: 복지관 3층 강당
3. 내용: 노래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2학년~6학년 어린이 모집

♣사랑방모임
1. 일시: 2006년 3월 17일, 24일, 31일(금)
2. 장소: 복지관 3층 강당
3. 내용: 지역별 등록가정이 함께 모여 친교의 시간

♣자원봉사자 리더회
1. 일시: 2006년 3월 28일(화)
2. 장소: 복지관
3. 문의 : (033) 254-7244

♣제13회 어린이 연합찬양축제
1. 일시 : 2006년 6월 24일(토) 16:00 ~ 18:00
2. 장소 : 춘천제일장로교회
3. 참가신청서 접수 : 3월 31(금)까지
 · 성가대 및 찬양대 소개서와 사진(담임목사님, 성가대장, 지휘자, 반주자,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사진 - 건물 혹은 교인 단체사진)을 함께 제출.
 · 참가 교회마다 2곡을 접수하되 곡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신청하는 교회에 우선권.

사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통일나눔터를 소개합니다.

**21세기 통일한국운동을 추구하며,
북한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주역은,
바로 기도하는 당신입니다!**

통일나눔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듯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복음을 기꺼이 나누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기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통일 및 북한사회이해를 위해 관련서적을 읽고 토론 하며, 통일한국과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임장소: 거성침례교회(011-366-8903, 017-379-0191)

두란노 어머니학교 춘천 2기

어머니학교는 성경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 리스도 안에서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녀를 잘 양육 하여 가정을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06. 3. 9(목)~4. 6(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장 소: 순복음춘천교회 교육관 3층
■ 회 비: 10만원
■ 계좌번호: 농협 301036-56-035555 예금주: 민병임 (지원자 이름으로 입금)
■ 문 의: 민병임 018-325-1968, 안금자 010-7390-9192

♡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총회



2006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강원지회(지회장 박인관목사)는 제5차 총회를 2월 1일(수) 오전11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개최하고, 군선교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힘쓴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전도, 진중세례, 원1회 순회헌신예배, 지역교회로의 연결 및 1:1자매결연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 및 정책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 전도전략세미나



2006 춘천 · 강원권 지역 교회성장을 위한 전도전략세미나가 2월 13일(월)~14일(화) 오전 9:30~17:30 춘천동부교회에서 열렸다. 교회성장연구소(소장 홍영기목사)와 춘천동부교회가 주최하고 21세기MTS사역네트워크가 주관한 전도전략세미나에는 약 500여명의 목회자, 평신도들이 모인가운데 긍정적, 증립적, 부정적, 회의적 불신자 4가지 유형에 따른 심층 전도전략을 제시하고, 지난 1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교회경쟁력 프로젝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춘천동부교회(임신영목사)의 전도사역과 더불어 청소년 전도에서부터 총동원전도, 아파트전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도전략을 소개하였다.

♡ 제13회 자원봉사자 축제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28일(화) 오전10시30분 월드비전 3층 강당에서 제13회 월드비전 자원봉사자 축제를 열었다. 기도와 봉사로 섬겨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손학균목사(석사교회)의 설교, 이명신관장의 인사말, 춘천시경제복지 정용기국장과 춘천시의회 김명규부회장의 축사, 박상자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특별히 이명신관장은 유공자에게 표창과 상품을 전달했다. 이어 춘천어린이집원아들과 월드비전 노인대학 스포츠댄스팀, 매직포커스팀의 공연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다.

♡ 제6회 강원도와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



제6회 강원도와 나라를 위한 국가조찬기도회가 2월 21일(화) 오전7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렸다.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도지회가 주최하는 이날 기도회에는 조관일강원도정무부지사, 류증수춘천시장, 함종호춘천시의회장, 춘천CBS김광수본부장, 강원도의회장 윤중국장로, 부의장 김형재장로, 전 월드비전 부회장 조남진장로, 전 교대 박민수총장, 춘천가정법률상담소 백명임소장 등 강원 지역의 기관장들과 목회자들, 평신도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도민의 화합과 행복, 지역의 균형발전과 성장, 국가정체성의 확립을 기원하며 예배와 기도회를 가졌다. 본회 부회장 허종구 장로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본회 회장 허천장로의 개회인사,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호목사의 기도, 춘천YMCA회장 차혜자 권사의 성경봉독, 그리고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목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시46:1~5)'란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거하시면 우리나라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였다. 한균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특별합심기도에서는 '민족 복음화,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김창환목사, '강원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장준홍장로, '춘천도시 발전과 성시화를 위해'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목사, '북한선교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연합회 총무 박인관목사가 기도하였다. 김창수감독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친 후 조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제1회 홀리클럽기도회



제1회 홀리클럽기도회가 2월 3일(금) 오전7시 평화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약50여명의 회원들이 침석하여 예배와 기도회를 갖고 월례회를 개최했다. 월례회를 통해 홀리클럽은 매월 1회 성시화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6월중에 개최한 것과 앞으로 미신우상타파운동, 효 실천운동, 청소년 비브게키우기운동, 환경정화운동 등을 펼치기로 결의하였다. 홀리클럽을 통해 춘천이 깨끗하고 거룩한 도시로 변화될 것을 기대해본다.

♡ 춘천5기 아버지학교



춘천아버지학교가 대성황을 이루며 제5기가 2월 25일(토) 오후5시 춘천석사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5시부터 10시30분까지 친교시간, 찬양과 Video 상영, 강의, 저녁식사와 합께하는 그룹 토의, 간증과 인터뷰 등으로 진행되게 된다.

♡ IVF중앙회 이사장이 · 취임식



한국기독학생회(IVF)는 2월 18일(토) 오전11시 춘천동부교회에서 중앙회이사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근수(홀성교회) 전이사장이 이임하고 박의범(강원대 경영학과) 신임이사장이 취임하였다. 박 신임이사장은 서강대IVF를 개척했고 한국IVF 학사회장, 중앙회 부이사장, 강원대 기독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무역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의범 이사장은 "한국 IVF가 캠퍼스 중심의 지성사회 복음화와 균형잡힌 크리스천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인정받기를 소망하며, 학사훈련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 청소년 찬양집회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명신)은 2월 20일(월) 오후7시 춘천사랑의교회에서 청소년 찬양집회를 개최했다. 복지관 등록 청소년 25명과 5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이루어가는교회 업주영전도사의 '청소년기의 신앙과 비전' 특강 후, 지역별 조별모임을 통해 신학기 계획 수립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최덕신 집사의 송명희 시인 작사의 '나'라는 특별찬양을 시작으로, 청소년기 삶에 있어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로운 찬양집회가 펼쳐졌다.

♡ 통일나눔터



21세기 통일한국운동을 추구하며 북한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인 통일나눔터는 2월 14일(화) 오후7시 늘사랑교회에서 허문영박사(통일연구원 북한인구실장)초청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허문영박사는 "주변 4대강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국제적환경, 북한의 공산화통일전략, 국내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직면해서 한국교회의 21세기 복음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과제"에 대해 강연을 했다. 통일나눔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7시 거성침례교회에서 통일한국과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웰빙 삼계탕 장 삼 원
귀한 분을 모신다면 장삼원으로 오십시오!
건강을 생각한 혼(魂)이 담긴 삼계탕,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 메 뉴
장뇌삼 삼계탕 · 한방 삼계탕 · 닭도리탕 · 한방백숙
※ 대형주차시설 완비
※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방향 500m지점
예약문의 (033)254-9191 · 9199

황성주 생식 춘천석사지점 오픈
하이마트 사거리 LG전자 2층
황성주 생식이 진정한 웰빙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목양클럽가입안내
목회자, 선교사님을 위한 목양클럽 회원이 되시면 -목회자 전용보장 1박스(생식 60포 -2개월분)를 주문하시는 분께 2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황성주생식 석사점에서는 함께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033)261-2002 / 019-350-5115
팩스 261-2333
대표 서 지 현 권사(시온성결교회)

광 고

사 설



오늘이란 날은 선물이다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봄이 와요. 봄이 와. 어름장 밑으로 봄이 와요"라고 어렸을 때 부르던 동요가 생각난다. 3월은 확실히 봄으로 들어서는 계절이다. 농부들은 벌써 농사 차비를 차렸고, 의상실은 봄빛이 짙다. 봄이 오면 언제나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만 같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살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는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왜?라는 질문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해버렸던 그 말을 오늘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스코틀랜드의 보너 박사가 어느 날 그동안 자기의 열심을 천사가 저울질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천사가 보너 박사의 열심의 증량이 100근이나 된다고 말하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그는 그 열심의 내역을 듣고는 부끄러워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 열심의 내역은 ①자기 이기심으로 행한 열심이 14근이며, ②패거리를 모우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낸 열심이 15근이며, ③자기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고 낸 열심이 22근이며, ④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낸 열심이 23근이며, ⑤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봉사한 열심이 겨우 26근으로 모두 합하니 100근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봉사한 열심이 겨우 열심의 26%밖에 안 됨을 알고는 부끄러움에 더욱 더 겸손해졌다고 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의 연설 속에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이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입니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1919 기미년 삼일운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애국애족이요 민족의 자존심이며 최소한 자기 스스로의 양심적 외침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차원을 더한 2006년의 삼일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귀신 들린 자 같이 한방 없이 - 방향성이 없어 갈팡질팡 - 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건적인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Today is a gift.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헌신하며,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1919년의 그 선열들처럼 정말 민족을 위한 피 같은 눈물을 흘려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위하여 자유롭게 기도할 수는 조국이 있음을 감사하자. 그리고 Today is a gift.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명심하며 허송(虛送)하지 말자.

❀ 알려드려요

◆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뚝딱 모임(중고교 기독동아리 리더모임)'
일시: 3월 4일(토) 오후 6:3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강의실

2) '청소년 복음화 대회'
춘천 · 양구 · 화천 · 홍천 연합집회
일시: 3월 25일(토) 오후 6시 장소: 강원대학교 실시구시관
문의: 244-5400/018-306-5171 (cafe.daum.net/holykids)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개강 채플'
일시: 3월 3일(금) 오후 7시 장소: CCC 회관

2) 'LTC(전도 강습회)'
일시: 3월 20(월) ~ 23(목) 장소: CCC 회관

3) '여수사이(신입생 전도 집회)'
일시: 3월 30일(목) 오후 7시 장소: CCC 회관
내용: 믿신자 신입생들을 초대해서 복음과 올바른 대학문화를 알림
문의: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빛과 소금과(중보기도) 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한신아파트 맞은편)
대상: 기정주부(관심있는 자매님)

3) 춘천 3기(RED TS(직장인특수리더제자훈련학교)
일시: 2006년 3월 23일~2006년 9월 초
원서접수: 2006년 1월, 2월 말 원서배부: 홈페이지, 춘천지부
문의: 033-252-1128 http://cafe.daum.net/CCBEDTS

◆ JDM

1) 'KDTI 개강예식'
일시: 3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WDTI(세계제자훈련원)

2) '개강 예배'
일시: 3월 9일(목) 오후 7시 장소: 은누리교회

3) 'TTS 개강'
일시: 3월 17일(금) 오후 7시 장소: 춘천지구회관

4) '대학 새내기를 위한 신앙 강좌'
일시: 3월 20일 ~ 22일 오후 7시 장소: 춘천지구회관

5) '새내기 한마당'
일시: 3월 24일(금) 오후 7시 장소: 은누리교회 (예정)
문의: 252-3192 / 011-9068-3192

◆ IVF

1) '새내기 캠프'
일시: 3월 13일 (월) 장소: CC포커스

2) '세계관학교 개강'
일시: 3월 13일 매주 월(8주간) 오후 7시 장소: IVF회관

3) '대표간사협의회'
일시: 3월 22일(수) ~ 25일 (토) 장소: 대전 옥천 좋은동산

4) 'AMP 개강'
일시: 3월 11일(토) 오전 10시 장소: IVF 회관
문의: 252-5200

◆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전도 주간 강습회'
일시: 3월 13일 (월) ~ 5월 22일 (월)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00~13:00 / 저녁반 7:00~10:0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등록금: 1인당 30,000원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dcdvl)

◆ GBT

1) 'GBT춘천지부 위클리프 스쿨 개강'
일시: 2006년 3월 20일~5월 29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11주간)
장소: 에덴교회(팔호광장 법원쪽에서 후평동 방면)
회비: 5만원 (학생4만원)
문의: 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 (03k@ybi.or.kr)

◆ 아가피아 드림교육

1) 아가피아 꿈의 학교 교사(2급) 과정(16주)
일시: 3월 16일(목) 오후 7시 개강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2) 강원아가피아 신재 개발 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4~중2 학생 의견밍 (밍밍한 아이를 인재로)
일시: 2006. 3월 중
학습방법: 방과후 교실 형태와 사이버학습
설명회: 1차) 3월 6일(월) 오후7시 학생 · 학부형 동시 설명회
2차) 3월 11일(토) 오후2시 학생 · 학부형 동시 설명회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033) 241-9939, 011-9058-37115

◆ 두란노 어머니학교 춘천2기

일시: 3월 9일 ~ 4월 6일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교육관 3층 회비: 10만원
문의: 빈병임 018-325-1968, 안금자 010-7390-9192

◆ 춘천선교세계관학교(MPS 10기 개강)

일시: 3월 11일 ~ 6월 3일 매주 토 오후3시~8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등록비: 55,000원(교재비 포함), 매주 자유헌금
문의: 253-3399 이수란 간사 019-9903-1148 (www.mpscc.net)

◆ 제2회 홀리클럽기도회

일시: 3월 30일(목) 오전 7시 장소: 제일감리교회
문의: 사무국장 김영명 장로 011-9792-5775

◆ 성시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7시 장소: 예광침례교회
문의: 성시본부256-1260

◆ 애비타트 춘천지회 주택현장건축팀장 모집

1. 모집 인원: 0 명 2. 서류 마감: 3월 20일까지
3. 제출 서류 및 면접 문의: 사무실 문의 254-0009
4. 자격: · 해비타트 기본 정신을 알고, 기독교 정신으로 열정으로 일하실 분
· 목건축 경력 또는 목구조 건축학교 수료자 및 예정자
· 자동차 면허가 있고 기동력이 있는 분
· 년령 : 만 35세 이상 55세 미만
5. 제출 서류: 이력서 1통, 자기 소개서 1통, 추천서(가능한 담임 목사 추천서 1통 또는 본인을 잘 알고 신분을 보증하여 줄 사람)



남자 500M쇼트트랙계주 금메달 송석우 선수의 기도

춘천 성시화를 위한 성시아카데미 1기생 모집

"21세기 미래 성시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 개설."

본 과정은 성시화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순수한 복음주의 시민운동을 위한 순수 신앙강좌입니다. 성시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 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 교육원(원장: 피종호, 나눔성결교회)
후 원 : 기독교연합회
기 간 : 2006년 3월 21일 ~ 6월 20일(매주 1회 화요일, 저녁 7:00 ~ 9:30분)
모집마감 : 2006년 3월 17일까지.
모집대상 : 성시화를 열망하는 모든 성도들, 선착순 45명
회 비 : 5만원, 모임시 자발적인 헌금
장 소 : 월드비전 3층 강당
수료생 특전 : 수료증 수여 및 춘천성시화 지도요원으로 추천
문의 및 신청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033)256-1260, 010-3118-9355

■ 강의내용 및 강사 (예정)

	강 의	강 사
1주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박상호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특강: 성시화운동의 역사(간증)	조남진 장로(초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2주	하나님나라와 리더십	이장로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3주	지방자치 경영전략	양형두 원장(한국인간개발연구원 원장)
4주	민족복음화와 통일한국운동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5주	하나님나라와 성경적 세계관	안점식 교수(한국선교훈련원 교수)
6주	교회연합과 중보기도	이종현 목사(비전2G기도회 대표)
7주	그리스도인과 문화	임성빈 교수(장로회신학대학 교수)
8주	그리스도인과 기업경영	박인범 교수(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9주	은시불 네트워크 사역	박인관 목사(춘천평안교회 담임)
10주	성시화운동의 비전과 전략	조영춘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11주	복음주의적 시민운동	최은상 목사(성서한국 사무처장)
12주	춘천시의 미래, 수료식	춘천시장, 피종호 목사(춘천성시교육원 원장)

■ 진행 강의와 질의응답, 그룹토의 ※강의 일정과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